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19일 월요일 (음 8월 19일) 제16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내 대학교 정원감축률 '전국 최다'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정원감축률 11.1%
10곳 중 8곳에서
3년간 2034명 줄어
서울대 등 4곳은 늘어

전북지역 대학 정원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대 정원이 줄고 감축된 정원은 수도권 대학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채워지면서 '지방대 죽이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은 32만424명으로 2013년(34만2,291명) 대비 2만1,867명이 줄었다. 대학별로는 평균 114명이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의 73.4%인 141개 대학은 2만1,867명의 정원을 줄였다. 대학 10곳 중 7곳이 정원을 줄인 셈이다. 특히 141개 대학 중 77%는 지방대에 집중됐다. 100명 이상의 대량 정원감축이 이뤄진 87개 대학 중 72개 대학도 지방대였다. 특히 전북지역은 정원감축률이 1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도내 10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에서 3년 간 2,034명의 감축이 이뤄진 것이다. 지역별 평균 감축율인 6.4%보다 4.7%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이에 반해 서울 소재 39개 대학 중 정원을 줄인 대학은 19교에 불과했다. 평균 감축율은 2.1%로 대학별 감축 인원 평균은 42명이었다. 수도권 대학 평균 감축률도 4.0%에 그쳤다. 수도권 대학별 평균 감축 인원은 70명인 반면 지방소재 4년제 대학 121교의 평균 감축 인원은 140명이었다. 반면 정원이 오히려 늘어난 대학은 6개교로 조사됐다. 이 중 4개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소재 대학으로 조사됐다.



다시 일상으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익산역을 통해 집으로 되돌아가는 귀경객들이 기차에 오르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결과는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며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지방대 붕괴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부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의 국·공립대 육성에 대한 비전 없이 무조건 원점 출발선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민형 기자

김대행은 "대한민국이 민생절망 상황에 빠졌다"며 "불경기 속에 추석을 맞이한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 발생과 관련, "진도 5.8의 지진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6.5 이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게 되면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으로 한반도에 대단한 원자력 재앙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참 많은 분들이 하셨다"고 전했다. /뉴스스

김대행은 "대한민국이 민생절망 상황에 빠졌다"며 "불경기 속에 추석을 맞이한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 발생과 관련, "진도 5.8의 지진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6.5 이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게 되면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으로 한반도에 대단한 원자력 재앙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참 많은 분들이 하셨다"고 전했다. /뉴스스

전북경찰청, 추석연휴 사건사고 집계 결과

5대 범죄 늘고... 교통사고 줄고...

살인·폭력 등 105건 발생 지난해보다 34.6% ↑
교통사고 95건으로 지난해보다 13건 감소

다섯시간 이어진 추석 연휴 동안 전북 북지역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5대 범죄는 증가하고, 교통사고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부터 이튿날까지 도내에서 총 105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108건 발생에 사망 3명, 부상 182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소폭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추석은 지난해보다 연휴가 하루 늘면서 강력사건도 늘었다"면서 "강력범죄가 늘었지만 다행히 검거율이 88.0%로 대부분 사건을 해결했고, 나머지 사건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내년 무주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올림픽 대회 등과 함께 국제경기대회로 인정돼 국가 등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북도가 밝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의하면 국제경기대회로 인정되는 대회는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세계사격장예인경기대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총 9개 대회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그동안 국제경기대회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동법 시행령을 지난 4월 개정해 국제경기대회의 범위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국제경기대회로 인정되는 국가주관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필요시 공무원 및 단체 임직원의 파견 요청,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배분요청, 휘장사업에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면제 등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공무원 16명(도 9, 시군 7)을 파견 받아 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에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한다는 목표를 갖고 170개국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태권도원을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성지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법령상 국제경기 인정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면제 등 제도적 지원받아

내년 무주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올림픽 대회 등과 함께 국제경기대회로 인정돼 국가 등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북도가 밝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의하면 국제경기대회로 인정되는 대회는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세계사격장예인경기대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총 9개 대회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그동안 국제경기대회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동법 시행령을 지난 4월 개정해 국제경기대회의 범위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국제경기대회로 인정되는 국가주관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필요시 공무원 및 단체 임직원의 파견 요청,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배분요청, 휘장사업에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면제 등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공무원 16명(도 9, 시군 7)을 파견 받아 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에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한다는 목표를 갖고 170개국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태권도원을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성지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여야 3당 3색 추석민심... 여 "안보불안" · 야 "정부 '불통' 국정운영"

여야 3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각기 다른 추석 민심을 전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불안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대행은 "모든 게 좋성하고 즐거운 추석이어야 하지만, 국민들은 힘든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과 9·12 지진,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민생경제 때문에 온통 어수선하기만 할 뿐 명절 분위기를 좀

새누리 "안보와 민생이 최우선"
더민주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국민의당 "먹고사는 문제 중요"

처럼 느끼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앞에서 남남갈등의 구태나 빛나는 우리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우리 내부의 국론 분열을 조속히 봉합하고,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모진의 보고로는 부족할 듯해 민심을 다시 한번 전한다. 교통체증은 악과였다"며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는 안전한가

등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한숨지었던 연휴"라고 혹평했다. 기대변인은 "국정 운영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민생과 국민 안전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데 정치권은 물론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대변인은 또 "음바지르듯 통합을 강요하는 것은 민생정치가 아닌 오만과 독선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민심 수습을 위해서는 우 수석 해임 등 아젠다 요구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가 갈수록 파헤쳐져가는 상황을 정부는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

지 의심"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보다 실효성 높은 과부와 와 닿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김대행은 "대한민국이 민생절망 상황에 빠졌다"며 "불경기 속에 추석을 맞이한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 발생과 관련, "진도 5.8의 지진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6.5 이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게 되면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으로 한반도에 대단한 원자력 재앙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참 많은 분들이 하셨다"고 전했다. /뉴스스

▶ 매일 INDEX
3면 지방의원 당적 불붙기 고심해야 4면 전주주드 정책까지 인정

제1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풍경

9월 23일~24일 양일 저녁 7시 30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특설무대

출연진
23일
24일

메인: 자전거 타는 풍경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주최: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주관: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 문의: 063-288-9700(전주매일 문화사업국)